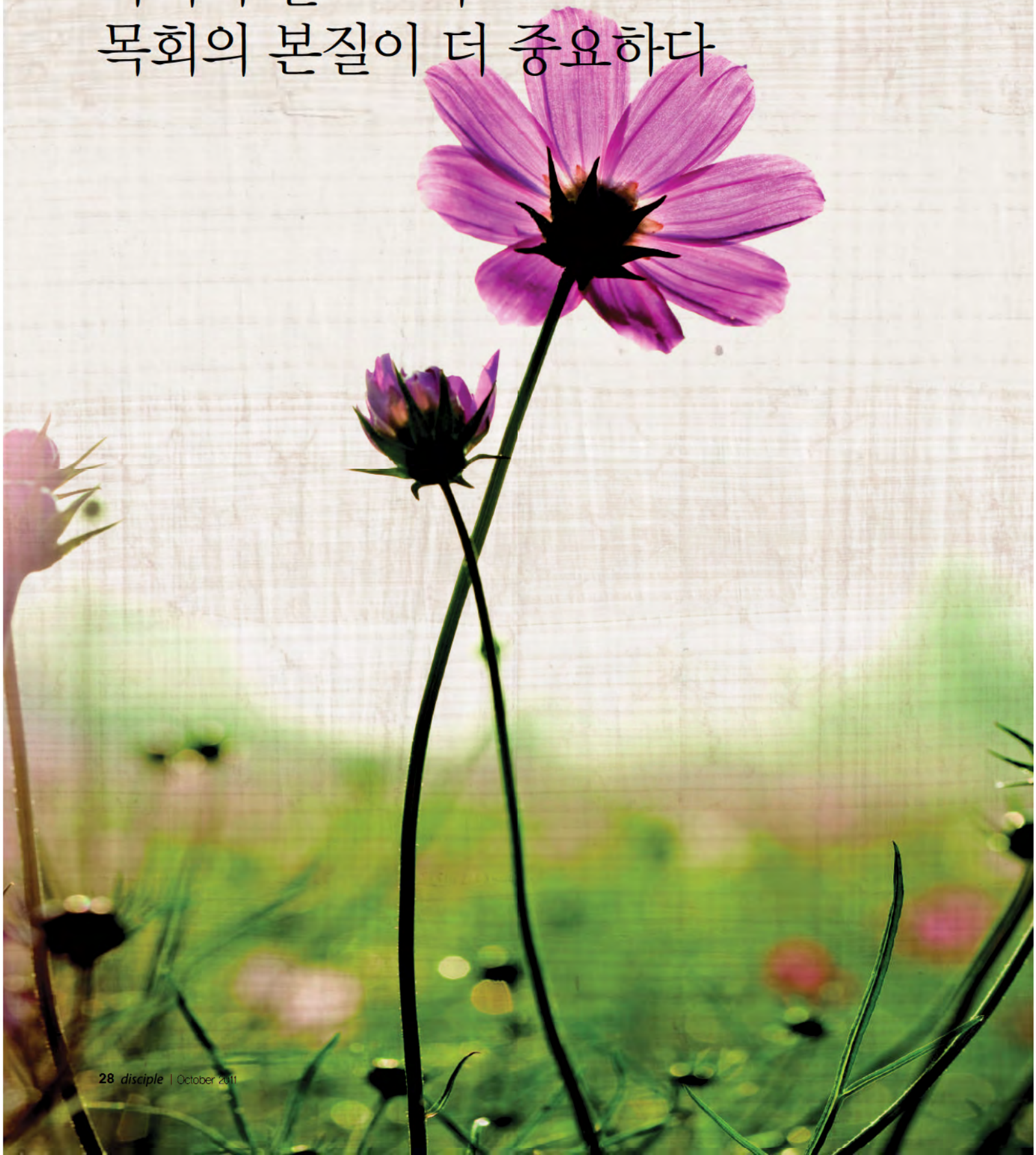
목회적 필요보다 목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반기성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와
장신대 신학대학원,
한남대 대학원(상담학)을
졸업했다.
청주 꿈이있는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호 〈디사이플〉 현장이야기에 소개된 청주 꿈이있는교회는 많은 독자들에게 제자훈련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준 대표적인 제자훈련 모델 교회였다. 그래서 故 옥한흠 목사도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비롯한 여러 강의에서 제자훈련 목회의 중요성과 그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꿈이있는교회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 후로 6년이 지난 지금, 과연 꿈이있는교회는 지금도 그때와 같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아니면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어떤 교회처럼, 혹시 꿈이있는교회도 제자훈련 목회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런 노골적인 질문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얼마 전 제자훈련 모델 교회로 잘 알려졌던 지방의 어느 교회가 결국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제자훈련 목회 동역자들 사이에 큰 충격을 던져준 적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교회처럼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하기 시작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왜 제자훈련을 포기하느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목회적 필요에 의해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도대체 우리가 성경적 목회철학이라고 주장하는 제자훈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목회적 필요'란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 〈디사이플〉 현장이야기가 청주 꿈이있는교회를 다시 찾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제자훈련 목회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보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6년 동안 꿈이있는교회는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붙잡기 위해 교회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담임인 반기성 목사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고 성도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는 오해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회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목회의 본질을 붙잡는 것을 선택했다. 그 결과 꿈이있는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2005년 당시, 1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개척 교회였던 꿈이있는교회를 주목했던 이유는, 이 교회를 섬기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두 꿈이있는교회를 개척한 반기성 목사와 10여 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눈물과 헌신으로 키워진 20대 청년들이었기 때문이다.

거리를 배회하는 불량 청소년 또는 결손 가정 출신이었던 그들은 반 목사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반 목사를 통해 성경을 알게 되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품과 자질을 배웠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심지어 부모조차 포기했던, 그래서 어쩌면 사회 부적응자로 도태될 수도 있었던 그들에게 반 목사 부부는 또 다른 부모였고 스승이었다.

반 목사는 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나 성도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다 보니 교회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반 목사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회에 개척 교회 지원금을 요청했다. 그런데 노

회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개척한 교회는 정식 교회가 아니라며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지역 내 유지들이 "이런 교회는 우리가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반 목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반 목사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표하고, "이런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진짜 교회"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단순히 거리의 불량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면, 반 목사는 굳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아도 됐다. 지역 유지들의 후원을 받아서 또 다른 아이들을 돌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다. 비록 청소년들을 데리고 시작한 교회이지만, 이 아이들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만 하면 자신과 같은 마인드와 열정을 가진 수십 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꾼 것이다.

그렇기에 반 목사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몇 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에 집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반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제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당연히 사람을 키우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사람을 세우는 목회가 중요한 이유

반 목사는 자신의 손에 의해 키워진 아이들을 목회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30여 명의 아이들 중 10여 명을 선발하여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중 몇 명은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그렇게 끝까지 훈련을 마친 6명의 아이들은 꿈이있는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져 반 목사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 반 목사는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꿈이있는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외부 지원을 요청할 만큼 어려운 교회 형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4억 원짜리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한 달 수입 전부를 건축헌금으로 드린 한 청년의 헌신에서 비롯됐고,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모든 아이들이 꼭 필요한 생활비만을 제외하고 자신의 수입 전부를 건축헌금으로 드릴 정도로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건축현장을 찾아 아침에는 기도하고, 저녁에는 인부들이 매일 아침 깨끗한 환경에서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을 말끔히 청소해 놓았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2년 동안 매일 건축현장을 찾아 아침에는 기도하고 저녁에는 청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인부들이 "수십 년간 공사판을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감동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 꿈이있는교회의 예배당 건축현장은 큰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단지의 주민들도 이 아이들이 2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건축현장을 찾아와 기도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다. 그리고 예배당이 다 지어지자 그 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다"며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한 지 1년 반 만에 30명 모이던 교회가 12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반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제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반기성 목사가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바로 그 청년 평신도 동역자들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어느 교회에 새로 등록했는데, 담임목사가 "당신을 섬길 리더입니다"라며 소개하는 사람이 20대 초반의 청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당연히 당황할 것이다. 어쩌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어린애를 내 리더로 세운 거야?"라고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준비된 리더인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철저히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며, 기회만 있으면 자신보다는 순원에게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인은 뒤에서 진심으로 그 순원을 돕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어린 순장들의 모습을 본 기성세대들은 이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05년 현장이야기 취재 당시 반기성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올해 우리 교회에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순장님처럼 되고 싶다며 제자훈련에 지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순장들이 기성세대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의 모습을 닮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반기성 목사는 그 일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준비된 리더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역자로 세우지 않겠다고 했다.

교회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그 후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꿈이있는교회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라면 교회가 장년만 2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자 제자반은 5기, 남자 제자반은 2기를 통해 총 35명이 훈련을 수료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수치는 꿈이있는교회에 갖고 있던 기대치에서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6년이 흘렀으니 최소한 500명 이상은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확인한 꿈이있는교회는 분명 그럴 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교회였기 때문이었다.

2003년부터 새가족 사역을 맡고 있는 서보득 집사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 꿈이있는교회는 거의 매주 새로운 교인이 등록한다고 한다. 그래서 등록한 사람들만 계속 교회에 정착했으면 500명은 훨씬 넘는 교회가 됐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25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꿈이있는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것일까? 이에 대해 반기성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단 저희 교회는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 단계의 양육을 거쳐야 합니다.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제자훈련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자훈련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역자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핵심 멤버로 자리 잡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새가족이 등록하면 기존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서 훈련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한 3년 버티다가 결국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훈련이 좋고, 열매가 분명하다면 왜 사람들은 훈련을 거부하는 걸까? 반 목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요. 열매를 보면 훈련을 받고는 싶은데 그것을 감당할 자신은 없고, 그러다 보니 선뜻 훈련에 지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 목사가 키워낸 청년 사역자 중 신학을 공부하여 지금은 꿈이있는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오은경 전도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셨다면 교회도 부흥하고 크게 성장했을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반 목사님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편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힘을 쏟으셨습니다."

오 전도사의 친구이자 오 전도사와 함께 청소년 시절부터 반 목사 부부의 손에 양육되어서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은영 자매는 오 전도사의 말에 이렇게 덧붙였다.

"거의 15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반기성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훈련을 강요하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목사님이 너무 세다', '고집이 너무 강하고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변화를 방해하는 습관

반기성 목사는 사람들이 꿈이있는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온 기존 신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신앙생활의 습관과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나 패턴을 계속 가지고서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깨는 사람은 계속 남는 거고, 그걸 깨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반 목사는 기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존 신자들이 깨뜨려야 할 습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기존 신자들은 좀처럼 자기를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오픈하는 자리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뜸을 들이다가 결국 안 하거나 하더라도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알게 되는 사람은 교회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신자들은 결국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과 진심을 나누는 교제가 힘들어져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아요. 성도들이 서로서로 알아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데 오픈을 안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이미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아는데, 기존 신자들은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반기성 목사는 기존 신자들은 훈련을 받을 때도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큐티 적용도 구체적이거나 개인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거나 추상적인 적용을 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것을 아무리 지적해도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은 직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꿈이있는교회의 성도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3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집사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님'이나 '자매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집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이미 집사 직분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은 집사라는 직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집사'를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호칭 정도로만 여기죠. 더 안타까운 건, 간혹 가다가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아직 집사가 아니라서 뭘 모른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집사만 아니었지 그분들이 훨씬 더 주님 뜻대로 사는 분들인데 말이죠."

반기성 목사는 이런 기존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다고 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중에는 여기서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 중에는 아직 주초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빨리 끊으려고 노력하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고민하면서 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등록한 분들 중에도 아직 주초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초부터 주초를 끊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문제는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혼자 안 먹고 꼭 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 중에 한 20여 명이 뭉쳐서 같이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많아졌어요. 담임목사로서 더 이상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고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중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했다는 어떤 분이 중심이 되서 그 20여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옮겨 버렸어요. 그것도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교회로 말이에요."

반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했다.

"그나마 초신자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기존 신자들이 그것을 훼방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자 제자반 1기 수료생인 이기정 집사는 이렇게 증언했다.

"기성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교회에서 그렇게 심하게 간섭하지 않으니까 편했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끊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임목사가 성도들을 품어 줄 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목사님이 아니라,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이런 목사님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저희로서도 안타깝고 아쉬워요."

목회자의 참된 역할

그렇다면 반기성 목사는 왜 그렇게 성도들이 강하게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일까? 반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이 조금만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태도를 보여줬어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품어준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잘못된 습관을 그냥 넘어가주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제게 있어서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목회철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느냐고 하세요. 하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잡아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저는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마음이 없습니다."

목회철학을 뒤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반기성 목사.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났지만, 반 목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반 목사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기 위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은영 자매는 반 목사의 이런 확고한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처음 반 목사님을 만난 것은 사춘기 시절, 날마다 술에 찌든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 10여 명을 데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셨다면 지금은 일반 성도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양은영 자매와 함께 반 목사 곁에서 15년 간 함께한 오은경 전도사도 반기성 목사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반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희에게 또 다른 부모님이세요. 어떤 때는 이분들이 제 친엄마, 친아빠가 아닌 게 속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나 삶에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때와 똑같아요. 그건 저희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공부하는 신학도로서 오 전도사는 반 목사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다.

"목회자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흔히 목사를 영적 아비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설교만 하고 교회를 이끈다고 그게 영적 아비의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기성 목사는 꿈이있는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 생각이 없다. 하지만 꿈이있는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데는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보이면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반 목사의 고백이다.

반기성 목사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제자훈련 목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적 목회의 본질"이라던 옥한흠 목사의 가르

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기성 목사는 그 답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 목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옥 목사님은 항상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교회를 돌아보면 희망이 솟기보다는 푸념만 나오는 게 현실이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성도를 만들려는 목회자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목회자들이 그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까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반기성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훈련

이제 조금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보자. 반기성 목사는 어떤 식으로 제자훈련을 인도하고 있을까?

우선 꿈이있는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려면 새가족 모임, 성장반, 대화훈련, 성경대학, 성경통독훈련 등의 양육 과정을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연이어 수료하면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자훈련에 들어올 수가 없다. 반 목사가 이처럼 제자훈련 전 단계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필수로 둔 이유는 그만큼 제대로 준비된 사람만 제자훈련 시켜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꿈이있는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는다면 그만큼 검증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제자훈련 과정 중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숙제가 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 주에 배운 내용을 반드시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훈련을 본인만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온 가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반 목사는 성경암송도 온 가족이 함께하게 하고, 큐티 숙제도 가족과 함께 나누게 한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훈련생의 가정에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반 목사의 증언이다. 반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자훈련 때 배운 내용을 가족과 나누다 보면, 가정에서 훈련생이 제자답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족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나 행동에서 늘 제자훈련생이라는 신분을 인식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훈련생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센 성격과 말 때문에 늘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던 어느 여자 훈련생의 남편은 훈련이 끝날 무렵 반 목사를 찾아와 "제 아내가 천사가 됐다"며 이렇게 자랑을 하더란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아내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출근길이 되고, 퇴근 때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최고로 알아주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퇴근길이 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일보 직전에 제자훈련을 받은 후 지금은 잉

"제자훈련 때 배운 내용을 가족과 나누다 보면, 가정에서 훈련생이 제자답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족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나 행동에서 늘 제자훈련생이라는 신분을 인식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훈련생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의 본질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목회적 필요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꼬부부로 소문난 커플도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 때문에 늘 표정이 어둡고 소극적이던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고 난 뒤에 표정이 바뀌어 적극적이고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했다. 또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댁 식구 전체를 전도해서 지금은 시댁 식구 모두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꿈이있는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훈련생 개인의 신앙인격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훈련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기정 집사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제자훈련에서 배운 것을 반드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나누라고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훈련에서 생활과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시고 배운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집에 가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기정 집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런데 그게 막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훈련생들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본인이 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은경 전도사와 양은영 자매도 이 집사와 같은 말을 했다.

"우리가 목사님 밑에서 자라면서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 '목사님처럼만 살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까지, 예를 들면 말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목사님은 철저히 제자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 사람의 증언은 반기성 목사의 제자훈련이 결코 가르치는 것에만 치중하는 훈

련이 아님을 말해준다. 즉, 반 목사는 성도들에게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삶을 실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5년에 실린 현장이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어린 순장들이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사실 그 어린 순장들은 "우리는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따라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모델이 반기성 목사임을 분명히 했다. 담임목사를 자신의 영적 모델로 생각하는 평신도 동역자들이라면 그 담임목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목회적 필요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2010년은 반기성 목사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한 해였다. 왜냐하면 반 목사가 너무나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옥한흠 목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 전도사와 함께 반 목사가 딸처럼 아끼며 키운 제자였다. 그런데 그 제자의 죽음이 반 목사의 가슴을 찢어놓은 이유가 있다.

"사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었어요. 조금 강한 주도형의 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주지 못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끝까지 그 아이와 연락하며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하던 학원에 불이 나서 죽었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전날 밤에도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꼭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아이에게서 온 답장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고를 당한 겁니다."

오은경 전도사는 당시 반 목사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목사님은 그 언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언니를 강제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지만 끝까지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죠. 그러다가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자신의 목회철학을 뒤흔들 목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지만, 상처 입은 한 영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반 목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수 십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도 반 목사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은 반 목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 '돌아가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세상을 떠난 제자 앞에서 저는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목회를 내려놓고 제자훈련 목회의 선배들을 찾았는데, 그때 선배 목회자들의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교회로 돌아온 반 목사는 올해부터 꿈이있는교회가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소그룹 시스템을 다락방 체제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반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교회의 담임목사님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목회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제자훈련을 제대로 했느냐고 말이죠.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의 본질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목회적 필요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반기성 목사를 통해 우리는 제자훈련 목회자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한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적용 중심의 훈련,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주는 목회자의 삶 등이 그것이다. 이런 목회자가 담임하는 꿈이있는교회를 누가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의 눈에는 작은 교회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꿈이있는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고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박순종 목사〉